

“도내 무자격 건설업자 근절해야”

무자격자 공사시 하자보수 청구 어려워... 건설업 등록증 양도 금지 필요

“싼 값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소리에 덜컥 공사를 시작했지만 공사 진행자가 무자격자인지라 물방울이 맺히는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어 속이 상할 따름입니다.”

무자격자가 마음껏 지어도 되는 집이 있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그렇다고 작은 집도 아니다.

연면적(여러 층으로 된 공간을 평지에 이어 붙였을 때의 면적)이 단독주택이라면 200평, 일반건물이면 150평 이하의 건축은 건설면허가 없어도 지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41조는 ‘연면적이 600㎡(200평) 이상 주택’, 495㎡(150평) 이상의 건물만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0평 이하의 단독주택, 150평 이하의 건물은 건축주가 마음대로 짓

거나 고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택을 건설할 능력을 가진 건축주는 거의 없다.

결국 건축주 시공은 형식 뿐 집장사로 불리는 건축 브로커가 관련 건설업자와 인부들을 모아서 집을 짓는다.

또 이들은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설계도면 역시 돈을 조금만 받고 대충 해주는 생각없는 건축사들에게 싼값에 구해 온다.

문제는 날립으로 짓고 업자들이 떠난 뒤에 건축하자가 수도북하게 발견되어도 형식적으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따지고 수리받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사의 공사 시공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하자보수보증 등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내외장, 미장, 타일, 도장장호

설치공사의 경우 1년동안 방수지방공사의 경우 3년동안 시공자에게 하자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무자격자에게 집 공사를 맡겨 이에 해당이 안된다. 특히 소규모 공사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상으로만 계약을 해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건축업자들이 건축주에게 무자격 업체를 이용하면 건축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꼬득여 건축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는 더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불법대여 혐의 고발 업체 중 80% 이상이 60일 이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설업 등록증 단기간내 양도를 금지토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유통 감소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화훼 주문 및 유통이 줄어드는 등 원예 농가와 화훼단지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백화점 유통관행, 코리아세일페스타 ‘찬물’

지난해 정부 주도로 실시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지만 실제 돈을 번 곳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1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500여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 할인폭은 최소 5%에서 최고 75%에 달했다. 문제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백화점들이 입점업체들에게 판매수수료를 한 푼도 깎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백화점들은 세일기간 업체들에게 판매수수료를 10% 가량 인하해준다. A 업체가 백화점과 30%의 판매수수료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일 동안엔 20%를 적용받는다. 백화점들의 비상식적인 갑질로 인해 일부업체들은 판매수수료를 인하받지 못한 채 역마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 같은 유통관행은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를 판매하는 A 업체의 경우 지난해 역마진 사태를 교훈삼아 올해는 백화점에서의 할인폭을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대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 한해 세일폭을 늘렸다.

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다. 백화점 입점 매장은 백화점에 내어놓는 판매수수료를 부담으로 인해 높은 할인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뉴시스

1인가구 나홀로 캠핑족 급증

캠핑은 늘 누군가와 무리지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란두란 무리지어 밤 하늘을 보며 속 깊은 대화도 나누는 것이 캠핑이 가져다 주는 낭만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나홀로족’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캠핑에서도 ‘오롯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30일 AK플라자의 온라인쇼핑몰 AK몰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 8개월간 1인용 상품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혼밥족(혼자 밥 먹기)·혼술족(혼자 술 먹기)에 이어 혼자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혼캠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AK몰의 캠핑용품 상품군의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71% 성장하며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캠핑용품 중 ‘싱글 해먹’은 288% 증가하면서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 1인 캠핑용 코펠 250%, 1인용 텐트 191%, 1인 돛자리 125% 성장 등 1인용 캠핑용품의 매출 상승이 눈에 띄게 높았다.

같은 기간 AK몰에서 판매중인 1인용 상품 매출 순위에서도 일본 집이식 리클라이언 1인 소파에 이어 반고의 1인용 텐트가 2위를 차지했다.

올해 8월까지 AK몰의 1인용 상품군의 전체 매출은 5% 성장했으며, 1인 가구가 선호하는 1인용 테이블 63%, 1인용 식기 10%, 1인용 침대 21%, 1인용 전기요 39% 성장 등 대부분의 1인용 상품들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마트와 핫 수삼 직거래 행사

농협은 본격적인 수삼 수확기를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마트와 함께 ‘대한민국 인삼농가와 함께하는 2016년 핫 수삼 직거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핫 수삼 직거래 행사는 총 일주일간 농협의 주요 하나로마트와 전국이마트 150개 매장, 이마트 온라인 몰에서 실시하며 시중가격 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인삼과 홍삼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지난 추석,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인삼선물세트 찾는 고객이 지난해 보다 많기는 절반에서 20% 이상 줄어들어 인삼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인삼재배 농가의 경영이 악화됐다.

또한 중국산, 미국산 인삼의 국내 시장 침식으로 인하여 인삼농가의 어려움은 배가 됐다.

이에 농협은 이마트와 함께 건강 먹거리로서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통한 인삼소비 확대를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뉴시스

“내수부진에 경영 힘들어”

한국은행 전북본부, 9월중 기업경기 설문조사 결과

전북지역 업체들은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6년 9월 중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31.0%)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8.2%), 경쟁심화(7.8%), 자금부족(7.8%) 등의 순이다.

비제조업체의 경우 내수부진(27.4%), 불확실한 경제상황(14.0%), 경쟁심화(12.0%), 인력난·인건비 상승(11.7%) 순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경제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경기조사를 실시했으며, 전체 44개 중 42개 업체가 조사에 응답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자동차·석유화학·음식료품·금속제품·기타 중공업·기타 경공업은 제조업에, 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기타 비제조업·사업서비스는 비제조업에 해당한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10월 중 업황 전망에서는 제조업은 상승하는 것으로, 비제조업은 하락하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고품질 태양광 구조물 제작으로 지역 경제발전 기여”

금강이엔지, 완주테크노밸리 1단지에 공장 준공식

벤처기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주>금강이엔지(대표 이종조)는 30일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완주테크노밸리 1단지내 현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환 전북도민일보 전무, 이성호 전북도 미래산업과장, 유흥수 완주군 일자리경제과장, 금강이엔지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환 전북도민일보 전무, 이성호 전북도 미래산업과장, 유흥수 완주군 일자리경제과장, 금강이엔지 임직원 50여명이 참석, 축하기념 테이프커팅식을 가졌다.

특히 및 출원등록,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등 R&D 사업 등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설계 및 공전문기업인 금강이엔지는 이노비스, 기업부설연구소, 고성장 기업,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등의 지정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금강이엔지 이종조 대표는 “금강

이엔지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지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개발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술이력”이라며 “완주공장 준공을 계기로 고품질의 태양광 구조물 제작과 배전반 및 수배전반 제작 등을 통해 기업문화 정착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